

“AI 살처분 8개월만에 재입식 했는데 폭염에도 한숨” 오리농장

“하루 30~40마리 정도 열병으로 죽어 나가”

“매일 물 분사·선풍기 가동하며 온도 낮추기”

“지난해 11월 조류인플루엔자(AI) 때 예방적 살처분하고 8개월여만에 오리 수만마리 들여왔는데 이제는 폭염때문에 매일 30~40마리씩 죽어 나가네요”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세지면 한 오리농장 주인 임모(54)씨는 구름한 점 없이 강렬한 햇빛만 가득한 하늘을 보며 한숨만 쉬었다.

농장에 가득찬 오리들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한방울씩 떨어지는 물분무기 주변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누워만 있어서다.

임씨는 오리가 열병으로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3차례 정도 분사기를 이용해 물을 뿌린다. 이 때 오리들이 조금 움직이지만 물이 멈춤과 동시에 오리의 움직임도 정지된다.

물을 자주 뿌려주면 또다른 병에 걸릴 수 있어 분사도 최소화 할 수밖에 없다. 대신 천장에 매달려 있는 대형선풍기를 하루 16시간 이상 가동하고 농장 앞 마당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실새 없이 물을 뿌렸다.

임씨의 노력 덕분에 오리농장 내부는 30도 이하로 유지되고 있지만 매일

30~40마리씩 열병으로 쓰러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임씨는 “지금은 그나마 밤 기온이 선선해 농장 내부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 열대야까지 지속되면 폐사는 순식간이다”며 “매일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AI때 예방적 살처분을 한 뒤 8개월여만에 입식 했는데 다시 폭염으로 폐사해버리면 31년 오리농사 끝내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임씨는 지난달 22일부터 14일까지 오리농장 10개동에 오리 5만7000마리를 다시 들여왔다.

지난해 11월 인근 농장에서 발생한 AI로 예방적 살처분을 한 뒤 8개월여만이다. 당시 함께 살처분 했던 다른

농장은 아직까지 오리를 들여놓지 못한 곳도 많았다.

임씨는 “당시 살처분을 한 뒤 정부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67만원, 3개월 지원했던 것이 전부였다”며 “피해액은 2억원이 넘었는데 빚만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할줄 아는 것이 오리 키우는 것 밖에 없어 빚을 내 오리를 다시 들여왔다”며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어 염분과 미네랄이 섞인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일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기계와 선풍기를 가동하고 있어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다”며 “소나기라도 내리서 온도가 조금이라도 내려가길 바랄 뿐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와 전남지역에 3주째 불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28일 오후 전남 나주시 세지면 한 오리농가의 오리들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물을 마시고 있다.

별 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 27일 기준 으며 가족 2만1370마리가 폐사했다. 75명이 온열질환 증세로 치료를 받았 기동취재본부



폭염 속 분류작업 연일 폭염이 계속된 28일 오전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택배대리점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30대 확진자 중 사망자 1명씩 발생...“기저질환 보유”

순환기계)내분비계·대사성 질환자 순 사망 많아

국내 20대와 30대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서도 최근 이들 사이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

모두 순환 질환자 접촉으로 감염된 기저질환자로 파악됐다.

2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신고된 사망자는 4명이다. 여성이 3명, 남성 1명이다. 연령대는 60대와 50대, 30대, 20대가 각 1명씩이다.

132일 만에 보고된 20대 사망자는 이번이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4번째다.

방대본에 따르면 4번째 20대 사망

자는 20일 확진된 이후 25일 숨졌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 경로는 순환 질환자 접촉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2월11일과 3월13일, 3월16일(사망 후 3월17일 확진) 1명씩 20대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0.01%다.

30대 사망자는 23일 확진된 이후 26일 숨졌으며 역시 기저질환이 있었고 감염 경로도 확진자 접촉이다.

앞서 30대 외국인 선원 1명이 입국

전인 23일 사망한 이후 국내에서 25일 확진된 데 이어 국내 30대 사망자는 10번째다. 30대 치명률은 0.04%다.

국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치명률은 이날 0시 기준 1.08%다.

고령일수록 치명률이 높아 80세 이상 18.31%, 70대 5.41%, 60대 1.02%, 50대 0.23%, 40대 0.05%, 30대 0.04%, 20대 0.01% 등이며 국내에선 10대 이하 코로나19 사망자는 없다.

방역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 등에 따라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저질환 종류 등은 유족 동의가 없다면 공표하지 않고 있다.

뉴스

극단적 선택 고교생, 생전 괴롭힌 동급생 3명 구속영장

장난 가장해 동급생 기절시키고 때린 혐의

광주 한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생이 생전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동급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안경찰서는 장난을 가장해 동급생을 기절시키고 때린 혐의(공동상해·공동폭행 등)로 A(17)군 등 동급생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 안팎에서 동급생 B(17)군을 고의로 기절시키거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학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 B군의 유족이 학교 폭력 피해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은 관련 수사를 벌였다.

유족이 경찰에 제출한 동영상엔 일부 학생들이 B군을 고의로 기절시키

는 장난이 담겨 있었다.

B군이 남긴 유서에는 학습 스트레스 관련 내용도 있었으나, ‘심한 장난을 맡겨줘서 고맙다’며 일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교내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가해 학생 11명을 특정해 형사 입건했다. A군 등 3명은 폭행 정도, 빈도 등에 있어 적격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기동취재본부

단순민원 120·110... 광주소방, 119 신고 급증 대비 당부

인명피해 우려 없는 배수 요청·동물구조 등

광주소방안전본부가 태풍·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전력난으로 대규모 정전 발생 시 119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비상접수 체계를 9월 말까지 운영한다.

신고 폭주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를 보강하고 119신고 접수대는 12대에서

34대로 증설할 계획이다.

특히 119신고접수 시스템 사전점검과 상황근무자 비상소집을 통한 상황관제 전담팀 운영 등 신고전화 폭주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해 재난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 긴급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배수 요청이나 동물구조 등 단순 민원신고는 ‘120 빛고을콜센터’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희준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대응의 시작은 119 신고 접수”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119 신고전화 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